

2023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 개최

인터넷 악플추방 선플 공모전 및 선플자원봉사대회 시상식 개최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12월 16일(토), '2023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을 중앙대학교 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활동 보고대회는 2023년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SNS 기사단 활동을 통해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펼친 우수 학생들과 지도자들은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2월 16일(토), 중앙대에서 '2023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 이 열렸다.

선플활동 교육자료부문 우수사례로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정지욱 교사'가 그리고 결과보고부문 우수사례는 '경일여자중학교 박용욱 교사'가 발표했으며, '정지욱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선플 교육 자료를 통해 2년 동안 교과목으로 운영한 선플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에는 선플 UCC부문 대상 정광고등학교 고훈 교사, 정가은, 김수아, 박서연 학생이 그리고 선플사진부문 대상으로 진영금병초등학교 박현성 교사, 선플결과보고부문 대상 경일여자중학교 박용욱 교사가 수상했다.

법무부장관상에는 선플문부문 대상 서울대학교 윤혁주학생, 선플자원봉사부문 대상에는 바이트댄스 최진혁 법무총괄이 수상했고, 교육부장관상에는 선플청소년지도(학교)부문 대상 대신중학교 공원기교사와 선플교육자료부문 대상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정지욱교사, 선플자원봉사부문 대상에

배움디자인 이희걸 회장이 수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에는 선플표어부문 대상 한양대학교 이호정 학생, 선플 SNS 부문 대상 아산초등학교 박홍수 교사, 선플자원봉사부문 대상 가수 이사벨이 수상했다. 이어, 선플 언론인상 1호로 김영상 코리아헤럴드 기자가 선정됐고, 선플 홍보대사에는 가수 켈리, 배우 선우림, 배우 고예린이 위촉됐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선플달기운동 시작한지 16년만에 선플 숫자 천만개가 달성된 뜻 깊은 해이다.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 올라온 악플을 보면 방관하지 말고, 악플러들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바로잡고, 선플달기를 통해 악플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플운동은 AI시대에 국민화합을 위한 K-리스펙트(존중) 운동"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사협의회 공원기 회장(대신중학교)은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신 분들을 축하'드리며 '선플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한글로써 선플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헤이트스피치,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치던 선플재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궁정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선플운동에는 지금까지 80여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여야 11대 국회의 원 전원이 선플정치문에 서명하였다. 선플운동 16년만인 2023년 11월 20일, 선플운동 사이트에는 1천만개의 선플이 달성됐다. 지난 12월 6일에는 필리핀 하원의회를 방문, 하원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필리핀 하원에 제출했다.

2007년 1월, 악플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연예인이 생명을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자들에게 악플로 고통받고 있는 유명인들의 사이트를 찾아서,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는 왜 악플이 나쁜지를 알리고, 또 악플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달고 url을 함께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 주었습니다.

신/년/사

"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모두 선플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7년 1월, 악플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연예인이 생명을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자들에게 악플로 고통받고 있는 유명인들의 사이트를 찾아서,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는 왜 악플이 나쁜지를 알리고, 또 악플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달고 url을 함께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 주었습니다.

동을 시작하지 16년만인 지난 2023년 11월 20일,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선플 천만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악플대신 좋은 댓글로 타인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온라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우리사회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로 인터넷 공간을 더욱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의원 100% 전원이 선플운동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천만 선플의 달성을 계기로, 청소년들은 혐오언어 대신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청소년 언어의 모범이 되는 정치인들은 막말 대신 정책과 비전 제시로 국민이 바라시는 화합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6일에는 필리핀 하원의회를 방문하고, 하원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필리핀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선플운동의 글로벌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선플재단은 국회의 통한 사이버폭력예방(선플)의무교육을 위한 법제화 추진, 선플감사 양성, 교육교재개발, 온오프라인 선플캠페인, 100인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온라인 무료 악플피해 상담 등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네티즌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선플운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 사회가 갈등과 균열을 뛰어넘어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민병철 교수, K-리스펙트 출판기념회

"생활영어방송, 선플운동 모두 우연히 만나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인세는 모두 선플 재단에 기부
1세대 '국민영어선생님' 민병철 교수, 민병철생활영어 쓴지 42년만에 에세이영어로 출간.

민병철 교수의 42년 만의 첫 에세이 영어책 '확실한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출판기념모임이 11월 14일, 오후 3시, 롯데호텔 37층, 가네트룸에서 열렸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주한 대사, 중앙대총장, 중앙대이사장, 광운대 총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 또는 영상으로 민교수의 신간 출판을 축하해주었다. 축하에 이어 선플재단의 선플운동 미니 캠페인과 외국인 존중 선언식이 열렸다.

● 문법중심의 한국 영어교육에서 '실용영어'라는 새로운 장르 개척

기존의 문법중심의 한국 영어교육에서 '실용영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데 이어, 2007년 최초로 악플추방운동인 '선플운동'을 창안한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MC 유재석·조세호씨와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담은 책 '확실한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Solid Success Comes from a Chance Encounter)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민병철 교수의 인생 여정을 실용영어와 접목한 것으로, 1981년 방송교재로 민병철 생활영어를 쓴지 42년만에 펴낸 첫 에세이영어가 책이다.

1980년대 민교수가 쓴 '민병철 생활영어'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책이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다. '민병철 생활영어' 책과 카세트테이프 세트가 필수항목처럼 여겨졌다.

그가 쓴 '민병철 생활영어'는 문법 위주의 한국 영어교육계에 '실용영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1981년 10월 MBC 첫 전파를 탄 '민병철 생활영어' 프로그램은 10년 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방송돼 영어에 목마른 이들의 새벽을 깨웠다. 학원 새벽 영어강좌반들이 민교수의 방송 때문에 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영어사용자와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영어 드라마를 많이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영어로 말할 수 없다."
초급영어를 배우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어를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도끼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영어를 말할 수 없으므로 연습한 표현들을 반드시 영어를 하는 사람과 실제로 소리를 내어 직접 대화를 해 봐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영어는 꼭 배워야 합니다. 첫째, 영어를 배우면 세상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영어를 배우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세계무대에서 펼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K-Culture)과 인스타그램(k_culture-official)을 개설했다. 민 교수의 K-컬처 소개 영상에는 마리아 테레사 주한 필리핀대사가 출연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8만부어를 돌파했다.

● '선플운동'의 창시자도 민교수는 선플운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2007년 악플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한 연예인 사건을 계기로 민교수는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선플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선플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들이 올린 선플이 9909만 개를 돌파해 1,0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7000여 곳의 초·중·고·대 및 다수의 단체에서 83만 명이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선플운동 출범 15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했다. "선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착한 '댓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좋은 말, 칭찬을 하는 '댓글'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융합된 것이 선플입니다."

● 'K-Respect'는 무슨 캠페인인가?

민교수는 선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K-리스펙트(respect)' 캠페인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선플은 존중 운동이다. 악플을 다는 이유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외국인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또, "750만명의 해외 동포들이 당연히 그 나라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존중캠페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 "K-팝, K-드라마, K-푸드"는 우리의 일상이다. K-Respect는 한마디로 한국인의 정신(spirit)운동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낯선 여행자에게 무상으로 숙식대접을 해온 고유한 미풍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이다. K-Respect는 바로 '한국인의 존중운동'이다."

지난 3월 27일에 개최한 K-리스펙트 행사에는 35개국의 주한 대사, 부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 대사들은 자



▲ 위 사진은 2023년 3월 27일, 선플재단이 국회선플위원장과 주최한 'K-리스펙트 선포식'.

국에서도 한국인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1세대 '국민영어선생님'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가 지난 16년 동안 악플, 헤이트스피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선플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낸 신간 '확실한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민교수의 첫 에세이 영어책이자 자기계발서이며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출판기념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상적인 선플운동 미니캠페인이 있었다. 한국인 대학생들과 외국인 대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악플을 추방합니다', '한국학생선플교사들이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을 존중합니다"'와 주한대사, 한외 선플학생, 교사, 선플회원 전원이 피켓을 들고 "서로 존중합니다"를 외쳤다. 캠페인 참여에는 외국인 대학생들 7개국에서 10여명이 참여했다.

민교수에게 캠페인을 많이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피치(pitch)발표한다.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피치중에 있다"고 말했다.

● 내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선플을 다는 것
총 60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난하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호주 출신 선교사의 아들을 통해 처음 영어를 접한 이야기부터 '민병철 생활영어' 방송시절, 대학 강의에서 만난 학생들과 그 밖의 인연들과의 에피소드를 진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선플운동을 하면서 겪은 사람들의 사연이 마음을 울린다. 각 장이 짧고 문장이 생생해 민교수의 육성을 듣는 듯 술술 읽힌다. 실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영어표현도 풍부히 담겨 있다. '민병철 생활영어' 다섯 권 중 핵심 영어표현들이다. 책의 인세는 모두 선플재단에 기부된다. "젊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MZ세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교수는 요즘 MZ세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은 사고를 디지털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디지털이 아니죠.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들어가야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복합시켜 오랫동안 숙성시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플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 민병철은 비저너리 교수, 작가, 시민운동가(평화운동)이다.

민교수는 미국 노던일리노이대(NIU) 대학원에서 리더십과 교육 정책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NIU로부터 '올해의 빛나는 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대 MBA코스의 석좌교수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혁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AI와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혁신창업 강좌(Metaverse Business Creativity)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대학교의 영어강의실에서 에티켓을 가르쳤고, 이는 악플추방운동인 선플운동으로 발전되었고 이어 K-리스펙트 캠페인으로 연결되었다. 또, 선플운동은 생명살리기운동이다. 민교수가 지구촌 전방반대 캠페인을 하는 이유이다.

● 선플운동과 K-Respect 봉사 활동을 섞지 않고 하는 동력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주위분이 말씀해주시는 "좋은 일하십시오"이 응원의 한마디이다. "제 책은 제 인생에 있어서 우연한 만남으로 성공을 이끌어주는 내용들을 에세이로 적고 중요한 생활영어표현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민교수는 외국인들과 대화하며 실전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화영어 '민병철유폰'과 어린이가 70% 말하게 하는 '주니어 유폰 화상영어'를 운영하는 민병철 교육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확실한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저자의 삶에서 우연한 만남을 성공으로 연결시킨 일들을 에세이로 적었고, 여기에 간단한 생활영어가 들어간 책이다. 이 책의 인세는 모두 선플재단에 기부된다.

민병철 지음 | BCM 출판사 | 240쪽 | 1만6700원 | 서점 및 온라인서점,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

2024 선플 서포터즈 모집

"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모두 선플운동의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 모집대상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자원봉사자
선플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
선플운동과 동아리활동을 지도하고자하시는 선생님과 지도자

■ 주요활동
- 선플달기 자원봉사
- 선플캠페인 참여
- 선플행사 참여

■ 활동혜택
- 자원봉사시간 부여
-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 주요선플행사 초청

■ 지원방법
지원은 우측 QR코드스캔 후 링크를 접속하여 지원하시거나 선플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02:535:3449, sunfullmovement.naver.com

2024년 선플 새해인사



이채익 의원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플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유명연예인들은 거친 험담으로 삶을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악플은 인간에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무서운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 1년간의 분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록에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분석하여 아픔을 온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이었습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후에 국회 의정활동과 울산지역선플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선플활동에 적극 참여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선플운동은 2022년 9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100%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민병철생활영어로 잘 알려진 민병철 선플재단이사장은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펼쳐 왔으며, 현재 80만명이상이 가입하고 2023년 12월에는 1,000만 선플댓글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글을 사용하는 선플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선플가족이 되어 앞장서서 나아가주시요! 2023년 5월 국회 '다문화 존중 캠페인'에서 30여개국 대사들이 함께 선플 확산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필리핀 페르디난도 하원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하원의원 47명으로부터 선플 인터넷 평화운동 동참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하원의회를 시작으로 선플운동이 필리핀 전역에 확산돼 아름다운 인터넷 언어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선플운동의 메아리는 필리핀을 발판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는 선플가족으로 2024년도를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이채익



서정숙 의원
국회선플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선플 가족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도 국민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선한 말과 선한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버텼습니다. 21대 국회의원정활동을 하던 중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선플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사랑과 감동의 언어를 통해 국민의 본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국회의원인 저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80만회원과 1000만 선플댓글을 달성한 선플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2015년 워싱턴DC 미국의회에서 당시 에드 로이스 하원의교위원장이 앞장서 깃발을 들었으며, 2023년 12월 6일 필리핀 의회에서 47명의 많은 하원의원들이 선플서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선플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갈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80만 선플회원과 1000만 선플을 단 선플 가족 여러분! 2024년도 새해에는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언어로 상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행복과 보람 가득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선플가족 여러분이 함께 하는한 우리사회는 밝은 사회로 나아가며, 국회의원들도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로서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통해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선플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선플가족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를 향한 발걸음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앞으로 정진해 나아가시는 선플가족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국회선플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서정숙

선플5대뉴스



1 선플재단, 5월23일, 제2회 '악플 없는 날' 거리캠페인 개최

- 제2회 악플 없는 날 거리캠페인 개최
- 전국에서 악플 없는 날 거리캠페인 열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5월 23일 서울 대신중고등학교와 대학생선플기자단, 경기도, 충남, 강원도, 부산, 광주, 인천,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베트남의 호찌민시한국국제학교 등 전국에서 악플 없는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악플 없는 날'은 16년 전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5월 23일을 기념하여, 이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에서 선포되었다.

선플재단에서는 5월 23일 '악플 없는 날'에 앞서 5/17-5/23까지 일주일 동안 '악플 없는 주간'으로 정하고, 광운AI고등학교(교사 정지욱), 삼은초등학교(교사 정희석), 광동중학교(교사 이홍재), 리라아트고등학교(학부모회 회장 민경아), 합백고등학교(교사 한인호), 꾸미루미(지도자 최준광), 숙지고등학교(교사 최연주), 상서고등학교(교사 전상민), 산촌유학교육원(교사 박현성), 삼계초등학교(교사 구은복), 대신고등학교(교사 신혜림), 구세군 부산영문(지도자 박근일), 육민관중학교(교사 이현미), 서천초등학교(교사 김철래), 인천보건고등학교(교사 유경숙), 에스청소년단(지도자 임마누엘),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사 고윤민), 고양제일중학교(교사 박연수), 오산고등학교(교사 한규천), 성문고등학교(교사 조지현), 예향청소년활동센터(청소년지도자 안수연), 정광고등학교(교사 고훈), 수성중학교(교사 김수정), 대학생선플기자단(교사 공원기), 논산대건고등학교(교사 김용상),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지도자 박현숙), 아산초등학교(교사 박홍수), 함평영화학교(교사 신보경), 선화여자고등학교(교사 김경수), 성연중학교(교사 조건용), 공감인휴머니티 교육연구소(지도자 오승희)

등 전국 50여개 선플운동 참가 학교와 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플추방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고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일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폐해를 인식하고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로 2022년 '악플 없는 날'을 최초로 선포했다"며, "선플운동은 청소년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 단체와 기업에서는 ESG선플운동을 사회공헌 테마의 일환으로 '인권과 인성교육 및 인식개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활성화 하여 사회갈등비용을 줄이고 차별과 혐오표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며 선플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전국선플교사협의회 공원기 회장(대신중고등학교 교사)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더욱 격려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경아회장(리라아트고등학교 학부모회)은 "선플 교육을 통해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올린 악플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이 악플 없는 날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전영주 대학생선플기자단 회장(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은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악플 없는 날'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언어 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선플운동본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 실시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맞아, 서울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대학생 23명 및 고교생 39명,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12명 등 총 74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가 (사)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선플인성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주도하에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티커투표와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신중학교(지도교사 공원기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오산고등학교(지도교사

한규천), 광운AI고등학교(지도교사 정지욱), 공감인휴머니티공감연구소(지도자 오승희), 마중물작은도서관(지도자 조복연) 그리고 대학생선플기자단(회장 전영주,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학생들은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 '내가 날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날 사랑하기 시작한다' 등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총 6종)을 들고 시민들에게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알렸다.

또한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악플 등 잘못된 인터넷 문화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이란 주제로 시민들과 스티커투표 및 인터뷰, 게임 등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나민선 씨(42세, 여)는 "자살이 심각한 이슈임은 알고 있었지만, 청소년 봉사자들이 준 자료를 읽고 설명을 들으며 그 심각성을 다시금 분명히 깨달았다"며, "특히 악플이 극단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댓글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최근 18년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선플교사협의회 공원기 회장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던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만큼, 이번 캠페인이 많은 분들께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자살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 사망원인 통계」에서 '고의적 자해'가 10-19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 자살이 크게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에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7월 (사)안실련의 후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2023 사이버윤리: 선플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한 바 있다.

3 선플운동본부, 국제대학교 '2023 사이버윤리: 선플청소년 여름 캠프' 개최

"긍정언어를 통한 응원과 생명존중을 배운다"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국제대학교(총장 이권현 박사)와 지난 8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시 국제대학교 캠퍼스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200여 명과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사이버윤리: 선플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2024년 선플 새해인사



홍익표 의원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플가족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홍익표입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찬 새로운 한 해, 청룡의 해 2024년에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동안 겪은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새해 2024년에는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대를 안고 기약하고 있습니다. 선플가족 여러분들께서 계획 중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그 성취가 공정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공로상'을 수상한 경험을 통해 국회에서 선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은 저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은 인간다운 행동과 긍정적이며 모범적인 언행에 대한 인정으로, 사회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히 영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과 상호 존중,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국민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국회에서의 업무를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인터넷상의 '악플'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점차적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플운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하고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격하고 언어와 혐오 발언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시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떨어뜨려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

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플운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이며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정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이보다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의 80만 회원과 1000만 선플달기 달성은 상당히 감동적이고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제 1000만 선플의 달성을 기쁘히 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기대가 높아집니다. 청소년들은 악플과 혐오언어가 아닌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소통의 가치를 키우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에게는 책임과 기대가 큼니다. 정치인들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화합된 정치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며,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책임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해가 선플가족 여러분과 모두에게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찬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여정에서 뜻깊은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홍익표



진선미 의원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존경하는 선플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2023년을 떠나보내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 청룡의 해를 맞아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는 용기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기와 희망,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맹하게 솟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용기백배, 희망천배 되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 나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플운동은 디지털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선플재단 사이트에는 80여만 명의 선플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 7천여개의 학교와 단체에서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플운동을 시작한 지 16년 만인 지난 11월 20일, 선플사이트에는 아름다운 선플 천만 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플 천만 개는 단순한 숫자를 뛰어넘어 타인에게 악플 대신에 좋은 댓글로 칭찬과 격려로 상처를 치유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선플운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활동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긍정적인 가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회 인터넷평화운동 서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플운동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토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선플가족 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에 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상호 이해와 긍정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세계 각국의 국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선플가족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나가며, 공정한 사회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4년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진선미

선플운동본부와 국제대학교, 전국선플교사협의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선플의 긍정적인 언어 확산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인터넷상에서 악플과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상호 배려의 선플운동의 실천을 통해 학교현장에 만연된 청소년 언어 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사)안심련과 평택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된 '2023 사이버윤리: 선플 청소년 여름캠프'는, 인터넷상의 악플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예방·대처법, 선플달기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강연, 친구의 고민해결을 돕는 온·오프라인 선플달기, 국제대 7개 학교 교수진 및 재학생들이 준비한 진로체험, 미니올림픽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이밖에도 사이버 윤리 확립을 위해 선한 언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참가 학생 및 학부모의 '사이버윤리 다짐 선서', 일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플달기 및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사들을 전국선플교사협의회 임원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수여식' 등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강연 및 공연, 영상, 체육활동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자살(예방)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학교 및 언어 폭력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평소 자신의 인터넷 사용습관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우리나라 20~60세 인터넷 사용자 1천 명 중 465%가 악성댓글 피해를 각·간접적으로 경험했다(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이번 '사이버윤리: 선플 청소년 여름캠프'가 청소년들이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플운동의 실천'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터넷에서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캠프를 공동주관한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오경숙 교수는 "최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만큼,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사이버윤리 교육과 집단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원기 전국선플교사협회 회장(대신중학교 교사)은 "선플운동에 적극 참여한 울산 교육청 신하 학교에서 학생들의 언어문화뿐 아니라 학교폭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사례가 발표된 적이 있는 만큼 일선학교에서도 선플운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는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이 향후 소속 학교와 SNS 등 온라인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 시상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1일 ESG선플운동을 확산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선플(착한댓글)운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ESG경영을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KOSA는 인직원 선플달기운동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조준희 KOSA회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상대방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선플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SW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희 KOSA회장은 "협약에서 추진중인 ESG경영 확산의 일환으로 인직원 뿐 아니라 선플운동 문화를 회원사들에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KOSA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의 ESG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ESG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원사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중소·중견 기업들이 ESG경영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 국회선플위원회와 선플재단, '다문화가족과 재한 외국인들 존중합시다' 캠페인 개최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호, 윤관석, 홍익표, 이재의 국회의원)와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을 존중합시다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재한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캠페인 취지의 발표와 각국 대사들과 청소년 대표들이 상호존중 선언문을 갖고, 국민적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에는 총 41개국의 주한 외국 대사들과 외교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의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 선플 지도교사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하여 다문화 가족과 재한외국인 존중캠페인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김태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은 다문화시대, 국민들에게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다문화 가족과 재한외국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인식시키고, 상호 이해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로 존중하며 포용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신속해진다"며, "오늘 출범하는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익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플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는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의 전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다문화 가정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의 공존을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과 재한 외국인을 존중합시다 캠페인 출범식은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캠페인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보다 용이하게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여건 개선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 존중을 증진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해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철 이사장이 2007년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 최초로 시작한 선플운동에는 현재 7000여 개의 학교와 단체에서 83만명의 누리꾼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289명 전원이 국민회합과 통합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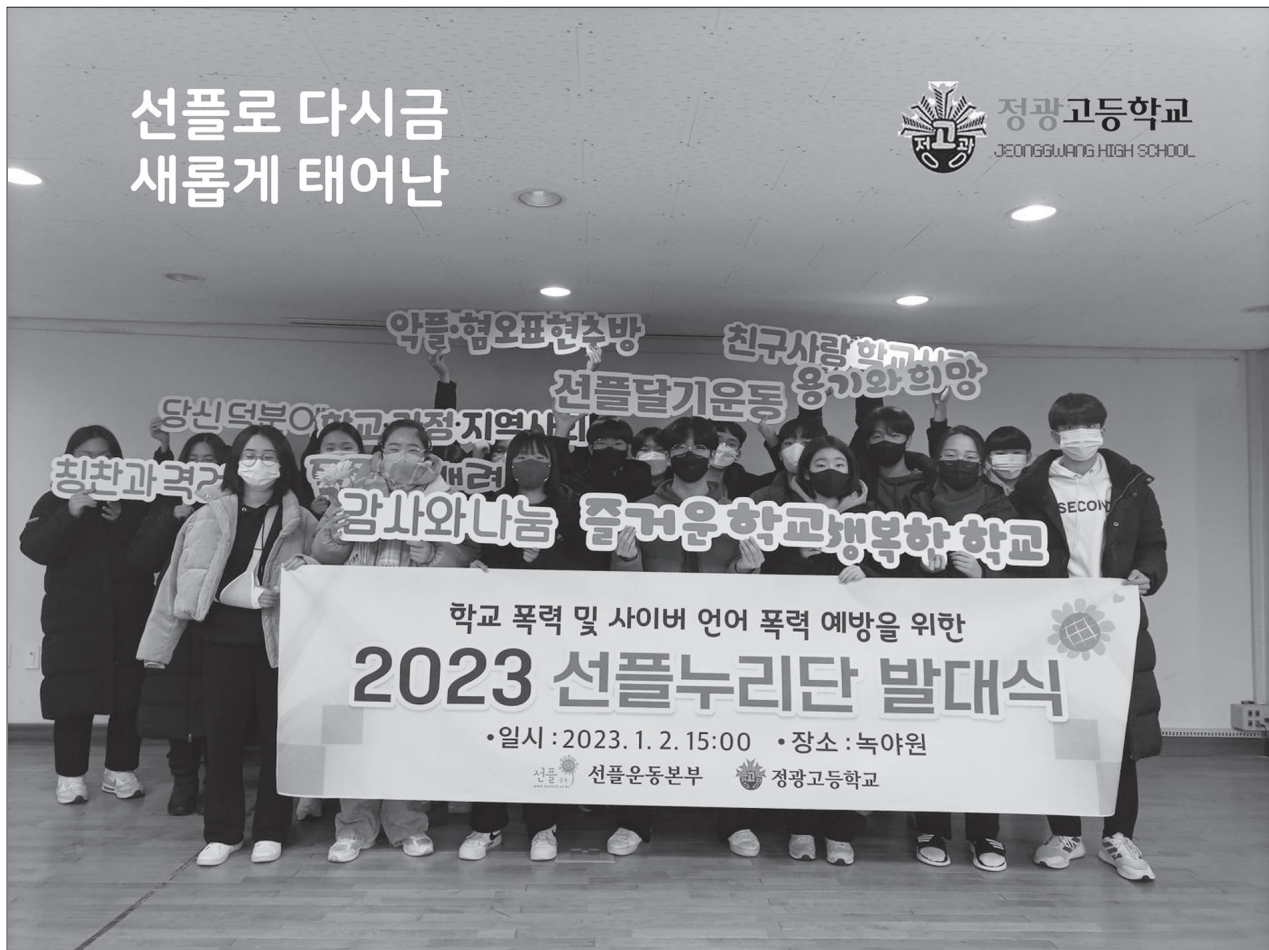
4 KOSA-선플재단, ESG선플운동 확산 MOU



<2023 선플표어부문 대상 한양대학교 학생 이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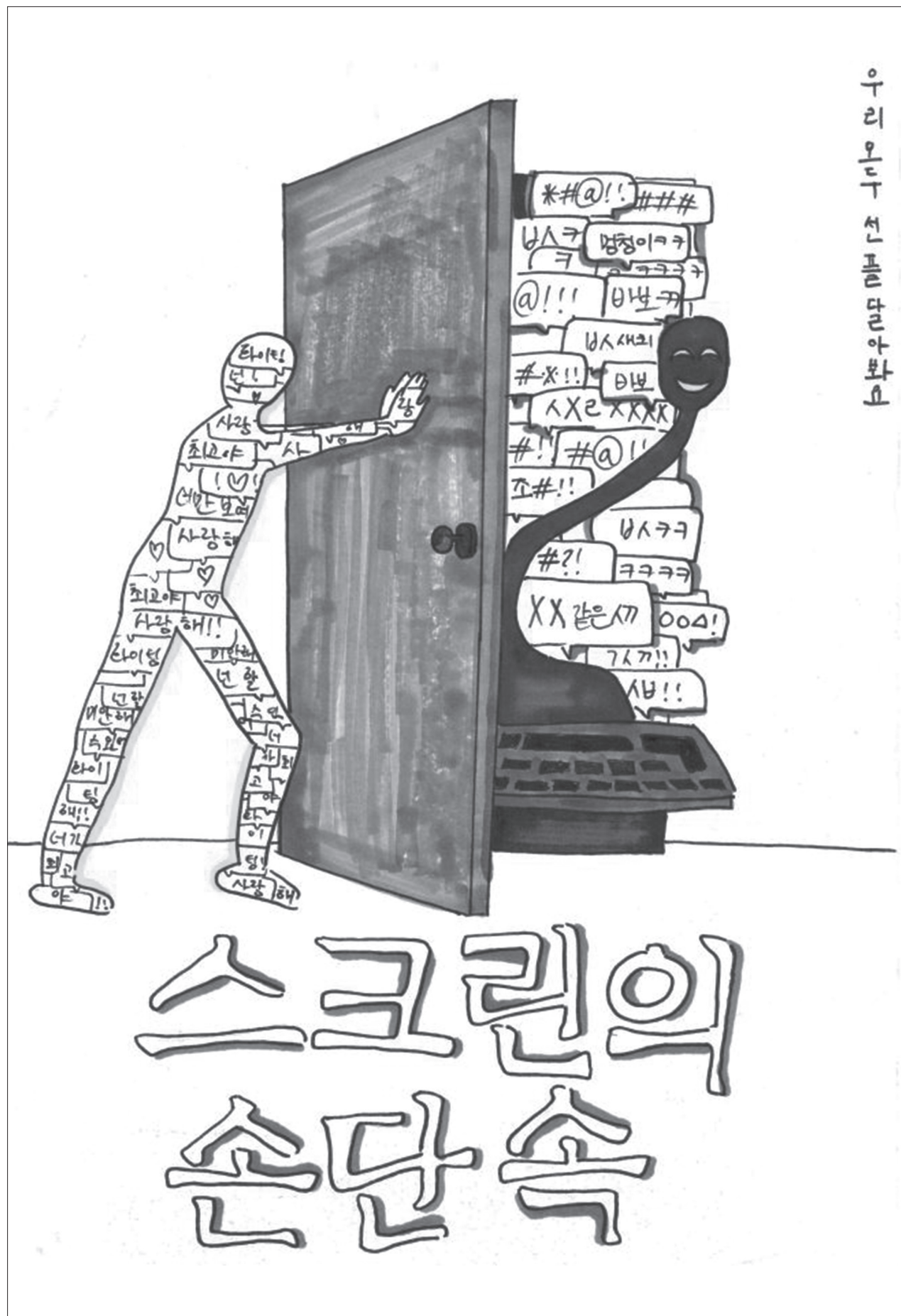
<2023 선플SNS 블로그부문 대상 아산초등학교 교사 박홍수>



<2023 선플UCC부문 대상 정광고등학교 교사 고훈, 학생들 정가은, 김수아, 박서연>



<2023 선플사진부문 대상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사 박현성>



<2023 선플포스터 만화부문 대상 안산해솔중학교 학생 고가빈>

| 논 | 문 |

선플에서 선포스트(善+post)로의 도약:

〈에브리타임〉 내 선플의 게시글화를 중심으로¹⁾

윤혁주²⁾

요약

이 논문은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년 세대가 정보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존이 주요 모토가 되어 버린 청년 세대가 내부적으로 '위로' 답론을 생산, 유통함을 '선플의 게시글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회로부터 주변화된 청년 세대의 집합 심리를 도태에 대한 불안 및 공포로 정의내리고, 그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청년 세대의 '자급자족적' 형태의 선플 문화를 소개한다. 특히,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청년들이 특정 게시글에 선플을 업로드함으로써 게시자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선플 활동에서 벗어나, 응원의 목소리를 다수에게 퍼뜨리기 위해 스스로 '게시자'가 되어 선플을 게시글화하는 모습은 기존에 선플 활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되돌아보고 이를 돌파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독특한 온라인 소통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선플 활동이 '선포스트(善+post)'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의 효과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선플 운동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차후의 과제로 설정한다.

핵심어: 청년 세대, 선포스트, 선플의 게시글화, 선플의 다양성

I. 인터넷과 청년 세대: 선플에 '세대'를 접목하다.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인터넷 세계는 연령을 불문하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 익명성, 광역성, 신속성과 같은 인터넷 세상의 특징은 기존에 인류 문명이 답습하고 있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었다.³⁾

특히 인터넷은 자아와 타아에 익명성을 부여해 현실 세계와 온라인 세계로의 인격 분리를 촉진했다. 현실과 온라인이라는 두 차원을 수시로 넘나드는 와중에 익명에 가려진 자아와 타아로 인해 인터넷 세상에서의 개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현실 세계에서의 자아를 추측하거나 그러한 추측 행위로부터 본인의 자아를 숨기고자 할 유인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실 세계의 답론이 변형된 채 인터넷 세상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인터넷이 갖는 광역성, 신속성의 성질로 인해 현실 세계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터넷 답론이 대중 사이에서 유통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세대별로 다르게 수용되는데, 세대별로 그 양상의 질적 구분을 야기하는 중요한 기준은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는가'에 있다. 변화를 체감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것인데,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은 그러므로 아날로그에서 인터넷 세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변곡점을 몸소 체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서의 청년 세대는 애초부터 현실 세계와 인터넷 세계라는 두 차원의 세계에 내던졌기에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인터넷 세계로 분화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이주민이 정보사회에서 재사회화를 요구당했다면, 디지털 네이티브는 최초의 사회화 과정에서부터 인터넷이 항상 함께했다. 그러므로 청년 세대에 대해 인터넷 세상은 다른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청년 개개인의 삶의 서사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대가 인터넷 세상을 다르게 향유하고 있음에도 선플 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서 '세대'를 접목시키는 시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선플 운동이 범국민적 사회 운동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적은 인터넷 세상을 온전히 사회화해 온 최초의 세대로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주지하듯,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세계의 주류가 청년 세대라는 사실은 선플 운동의 확장성이 그들 내부에 배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선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년 세대가 갖는 중요성에 집중해 인터넷 세계에서 선플 문화와 관련된 청년들의 정발성을 의제화하고 청년 세대를 선플 운동의 중심으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II. 청년 세대의 주변화: 왜 그들은 위로조차 자급자족하게 되었나?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구조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선플과 관련된 하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압축적 근대화 겪은 한국은 세대를 소재로 이야기할 때 진행하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국가이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겪어온 현재의 주류로서 386세대들은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386 세대는 학교-직업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의 빠른 경제적 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노동 수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강조된 채로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배치될 수 있었다. 동시에 이 세대는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해온 세대들로서 정치 효능감이 어떤 세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386세대의 내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이바지했다.⁴⁾

반면,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첫 세대이다.⁵⁾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가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경쟁에서의 승리는 생존을 위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하나의 경쟁에서의 승리는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경쟁 상황을 미래로 연

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현실에서의 몸부림으로 인해 청년층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에너지도, 그것의 원동력이 될 정치 효능감조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의 20대 총선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제18대 총선의 경우 20대 투표율은 28.1%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에서 30대 국회의원은 8명으로, 5·60대 국회의원이 268명인 것을 생각하면, 청년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서 빛을 발하기 힘들다. 지역 거버넌스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나 그들이 주류가 되는 사례가 매우 적다 보니, 공동체의 운영과 발전에 청년들은 소외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는 "사회적인 것의 성스러운 환상이 벗겨진, 인간의 생물학적 나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처절하고 슬픈 사상, 사회적인 것의 불가능이 생산하는 마음의 형식"으로서 생존주의를 삶의 태도에 내재화하게 되었다.⁷⁾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의 결합은 청년 세대에게 언제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중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쟁의 질적 속성 또한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쟁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청년들에게 도태에 대한 불안, 공포가 집단 심리로 작용하게 되었다.⁸⁾

특히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의 결합은 상대방을 무너뜨림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거나,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에 대한 비난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써도 작용하게 되면서, 청년 세대 내에서 '혐오'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청년 세대에게 기성 세대는 이러한 본인들의 상황을 토로하고 위안을 받는 존재로서 기능한다기보다는,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를 '꼰대'라고 칭하는가 하면, 기성 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을 가짐을 비꼬는 표현으로 'MZ 세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청년 세대에 대해 기성 세대는 급속한 성장이라는 특수성에 혜택을 받으며 주류로 성장한 세대임에도, 본인들의 역사적 경험을 청년 세대에게 똑같이 주입하여 평가하려는 것에 반감을 갖는다. 이외에도 앞으로 극단적인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형성하게 될 한국에서 연금, 정치력, 문화 등의 영역에서 희소한 자원을 두고 세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⁹⁾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등의 자본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은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된다.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는 내적으로는 개인 수준에서 경쟁으로 인한 만성적인 혐오 가능성에, 외적으로는 집합적인 수준에서 본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 분출이 억압되는 것에 고통받게 된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청년 세대는 위로조차 스스로 생산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변화된 청년은 주류 매스 미디어가 생산하는 '기사'에 머무르기보다, 그들이 주류가 되는 여러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인터넷 세상에 누그러져 잘 적응하고 그들의 'MZ식 용어'를 자주 창조하는 청년 세대에 대해 커뮤니티가 그들만의 하위 문화를 생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가 만연해지는 청년 사회 내부에서의 혐오를 찾기 위해서 커뮤니티는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나, 정작 청년들의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선플 문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청년들의 소통 창구임과 동시에 독특한 양식으로 선플이 생산되고 있는 공간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갖는 구조적 위치와 커뮤니티에서의 선플 문화를 교차시키는 작업은 그렇기에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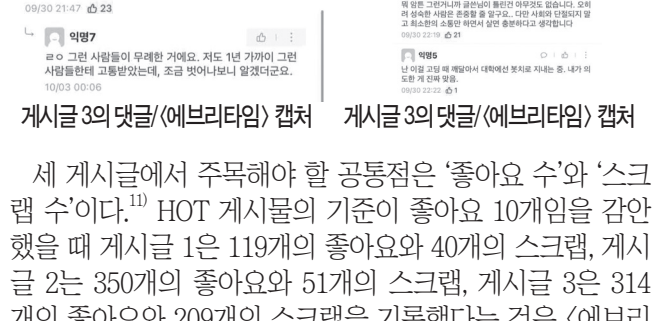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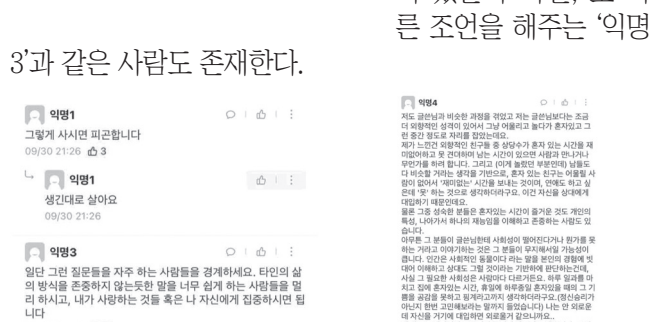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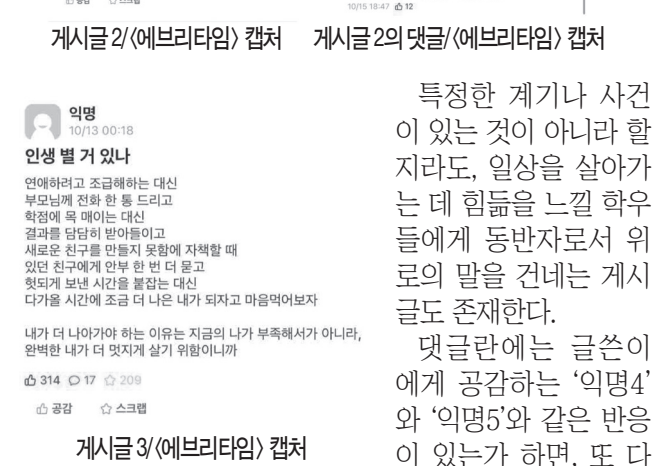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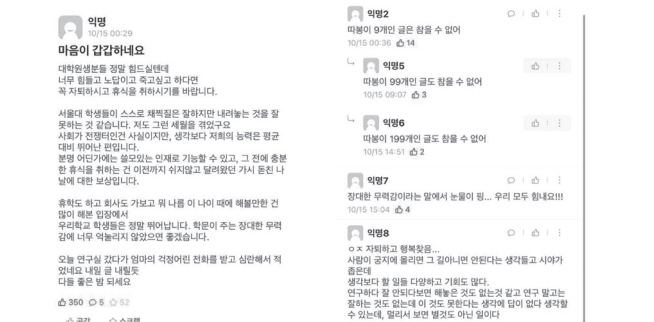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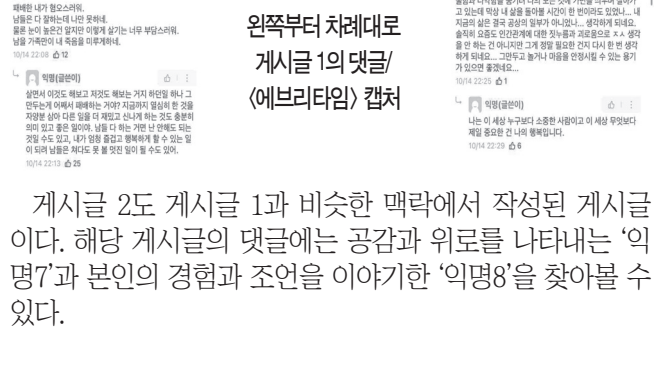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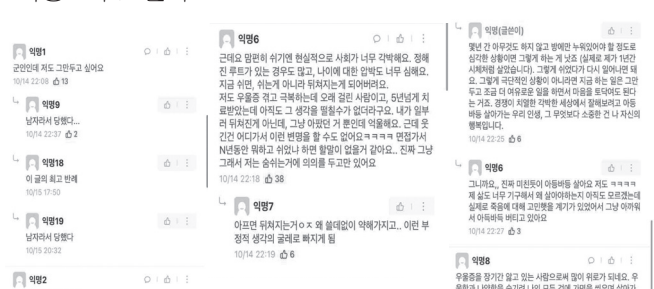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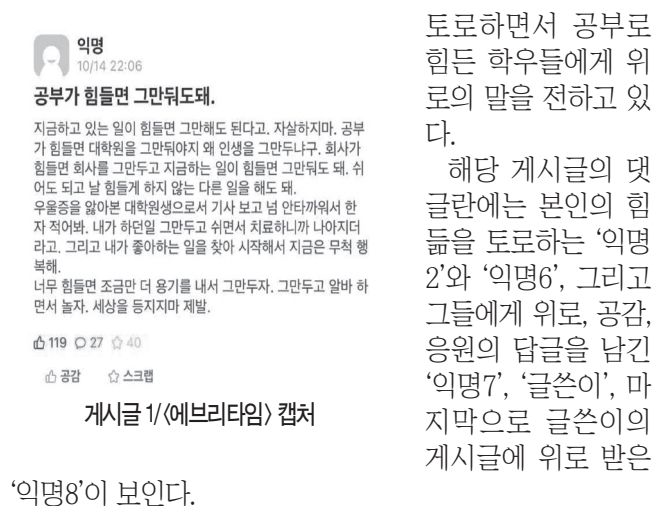
III. 〈에브리타임〉 HOT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선플 문화: 선포스트(善+post)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년 세대가 갖는 중요성,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의 결합으로 인해 생존주의 속에서 홀로 버텨나가야 하는 청년 세대가 위로마저 스스로 생산해내야 한다는 현실은 실제 청년들의 커뮤니티에서 드러난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주목했다.

〈에브리타임〉은 각 대학별로 그 대학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교내 행사에 대한 정보와 총학생회의 공지, 정치적인 토론부터 고민 상담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까지도 등장하는, 폭넓은 종류의 논의가 진행되는 장이다. 〈에브리타임〉 가입자라면 누구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에브리타임〉은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는 높은 익명성을 보여주며, 좋아요 10개 이상을 달성하면 HOT 게시물로 표시되어 빠르게 학생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신속성, 광역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대학¹⁰⁾의 에브리타임에서 2023년 9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HOT 게시글'에 등장한 선플 문화를 살펴보았으며 '좋아요'와 '스크랩'의 수는 2023년 10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생들의 선플 문화가 기존의 선플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후의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에브리타임〉 내에서 대학생들은 선플을 댓글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개념으로 활용하여 '선플의 게시글화'를 이뤄냈다.

위 사진은 A대학교에서 있었던 대학원생의 자살 이후 올린 게시글이다. 게시자는 우울증을 앓았던 자신의 경험을



3'과 같은 사람도 존재한다.

세 게시글에서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좋아요 수'와 '스크랩 수'이다.¹¹⁾ HOT 게시물의 기준이 좋아요 10개임을 감안했을 때 게시글 1은 119개의 좋아요와 40개의 스크랩, 게시글 2는 350개의 좋아요와 51개의 스크랩, 게시글 3은 314개의 좋아요와 209개의 스크랩을 기록했다는 것은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²⁾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적극적으로 〈에브리타임〉에서 드러내고, 공감하고, 토닥여주고 있었다. 비슷한 삶의 경로 위에 서 있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일에서 탄생한 선포스트(善+post)는? 그 어떤 것보다도 독특하고 효과적인 선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IV. 선플에서 선포스트(善+post)로의 확장

'선플운동본부'는 '선플'을 "'선의적인 댓글(positive com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의적인 댓글(malicious comments)'인 '악플'에 대한 반대어'로 정의하고 있다.¹³⁾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플의 정의, 더 넓게는 이미지나 개념 또한 특정 기사나 블로그 따위에 어긋난 목적을 가진 댓글을 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댓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선플은 그 정의상 댓글을 강조하면서 '게시글'의 개념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플의 게시글화'로서 선포스트(善+post)는 앞서 살펴

본 〈에브리타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선의적인 '게시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플 문화의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선플이 수동적 반응으로서의 댓글을 의미한다면, 선포스트는 능동적 행동으로서의 게시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플 운동이 선포스트를 적극 강조하는 순간, '반응으로서의 선플에서' '주도로서'의 선플로 운동의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둘째, 선플이 가지고 있던 일반형적 성격이 다양형적 성격으로 탈피될 뿐만 아니라 '하나를 향하는 다수의 모델에서' '다수를 향하는 다수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로서 선플은 누군가 한 명이 올린 게시글(대부분 기사나 블로그)에 선의적 댓글을 업로드하는 것이므로 위로의 방향이 댓글 작성자로부터 게시글 작성자에게 일반형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를 향하는 다수의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선포스트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로와 선의를 전하면서(위로의 방향이 다수를 향하면서) 댓글에서 그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장시키므로 다양형적이며 '다수를 향하는 다수의 양상'을 띤다.

이는 선플 운동의 확장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선플 운동의 방향성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각각의 개인을 인터넷 세상에서의 소비자라 바라본 관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생산자로서 인식하고, 그러한 생산 능력을 어떻게 선플 문화 생산으로 이끌어낼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선포스트(善+post)'의 마케팅화와 더불어, 특정 기사에 선의적 댓글을 업로드하면 봉사시간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에 더해, 자신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선의적인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것 또한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가 아닌, 커뮤니티를 선플 운동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은 커뮤니티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집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플 운동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깊이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공식적인 표현법에서 벗어나 각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세대별 표현 양식에 맞는 새로운 언어로 확장되는 선플 문화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년 세대가 갖는 중요성을 근거로 청년 세대의 선플 문화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경쟁의 일상화 및 생존주의화로 인해 도태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집단 심리로 갖게 된 청년 세대들이 기성 세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위로의 목소리마저 스스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만들어 낸 독특한 선플 문화로서 〈에브리타임〉 내 '선플의 게시글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선플 운동이 반응으로서 댓글만을 강조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에브리타임〉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 선의적인 '게시글'이라는 의미의 '선포스트(善+post)' 개념을 제안했다. 선포스트는 인터넷 세상에서 생산자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고 다양형적인 응원과 위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향후 선플 운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포스트 또한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봉사시간 인정 체계의 변화와 선플운동본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선포스트 마케팅을 주문함으로써 선플 운동의 성공을 위한 옵션을 제공했다. 물론, 각기 다른 커뮤니티의 언어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러한 언어로 쓰여진 게시글이 선포스트로 인정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 연구의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기층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016, p. 27-52.
- 2)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pp. 179-212.
- 3) 민병철, 오경숙,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과 선플활동 경험과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2019, pp. 45-53.
- 4) 박소진, 〈386세대와 젠더: 남성에게모니와 386세대 여성〉, 《비교문화연구》 26(2), 2020, pp. 5-42.
- 5) 이재경,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경제와사회》 여름호, 2018, pp. 18-48.

1) 본 연구는 선플운동본부에서 주최한 '2023 선플공모전 및 자원봉사대회' 출품 연구논문이다.
 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소속, gww0408@naver.com
 3) 민병철, 오경숙,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과 선플활동 경험과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2019, pp. 46-47.
 4) 박소진, 〈386세대와 젠더: 남성에게모니와 386세대 여성〉, 《비교문화연구》 26(2), 2020, pp. 18-20.
 5)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기층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016, p. 30.
 6)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pp. 194-195.
 7) ibid, p. 206.
 8) 경쟁에 대한 강조가 자-타 관계 심화된 나머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도태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오히려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져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건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게 되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맹목적으로 쫓게 되는 '좀비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9) 이재경,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경제와사회》 여름호, 2018, pp. 20-23.
 10) A대학이라는 표현은 특정 대학의 이름을 퍼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것으로, 대학의 초성 따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밝힌다.
 11) 스크랩은 이용자가 자신의 마음에 든 게시글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브리타임〉의 기능이다.
 12) 실제로 〈에브리타임〉에서 좋아요 10개 넘으면 HOT 게시글은 2023년 9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총 21개뿐이었다. 게시글 2의 경우 2번째로, 게시글 3은 세 번째로 높은 좋아요 수를 기록했다.
 13) 물론, 이것은 선플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선플의 합리적 정의로, 광역적 정의로 '선한 말(good words), 선한 글(good comments), 선한 행동(good deeds)'을, 선한 마음(good heart)의 실천을 게시글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플을 합리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실상 그것이 유일한 정의가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글로벌 평화운동

필리핀 하원의회에서도 선플운동에 참여한다

- 하원의원 47명 선플동참서약서 서명
- 어린이대상 사이버 괴롭힘방지법안 의회 상정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12월 6일, 필리핀 하원의회를 방문하고, 하원의원 47명으로부터 선플인터넷평화운동 동참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마리사 맥시노(Marissa Magsino) 하원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서명지는 페니난드 로물란데스(Ferdinand Romualdez) 하원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선플서약서 서명은 마리사 하원의원의 주도로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마리사 의원은 '아동 대상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안' (Anti-Cyberbullying Against

Children Act)을 의회에 상정했다.

마리사 의원은 "선플운동은 청소년들의 언어 순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리핀의회에서 좋은 언어사용을 통한 아름다운 정치를 펼쳐 나가는데 꼭 필요한 운동이다. 선플재단팀이 필리핀을 떠난 이후에도 필리핀 상·하원의원들의 서명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리사 의원은 선플재단으로부터 필리핀의회 선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선플대사로 위촉되었다.

필리핀 하원의원에서의 선플운동 서약서 서명은, 2019년 민병철 이사장의 제안으로 플로리다 로베스(Florida



▲ 왼쪽 네번째부터 Marissa 'Del Mar' Magsino 하원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일곱번째 Romulo Victor ISRAEL, JR 주한 필리핀대사관 총영사

Robes) 하원의원이 제18대 필리핀 하원의회에서 선플결의안을 상정하였고, 당

시 하원의원들이 선플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 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필리핀 의회 선플서약서는 선플재단과 국회 선플위원회(공공위원장 이재익·홍익표의원의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재익 의원은 "필리핀 하원의회를 시작으로 선플운동이 필리핀 전역에 확산되어, 아름다운 인터넷 언어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했고, 홍익표 의원은 "75년간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어 오고 있는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선플

운동을 통해 더욱 우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대사는 상승만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필리핀에서도 선플운동을 통해 인터넷 역기능해소와 한-필리핀 양국의 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 주한 필리핀대사는 "평화와 존중에 대한 공통된 가치인 선플운동을 필리핀의회에 전달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 대사는 선플인터넷평화운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23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김영배 선플클럽회장은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인으로 구성된 한-필리핀이 마닐라에서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양국의 선플

경제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선플운동이 필리핀의회에서도 이루어 지게 되어 선플운동이 K-리소펙트 한류로 지구촌에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한다"며, "은오프상에서 사이버폭력 및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7년,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 표현을 추방하기 위해 민병철 교수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선플운동에는 2022년 9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100% 전원이 서명하였으며, 전국 7천여 개 학교 및 단체, 80여 만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하고 있다.

오진숙 기자

2024년 선플 새해인사



공원기 회장
전국교사협의회

존경하는 선플교사협의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오직 안녕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플운동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플 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과 혐오 발언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배려와 존중

을 바탕으로 한 언어로 타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행복과 보람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플교사협의회는 국회선플위원회와 함께한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을 존중합시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서울 독립공원과 혁신파크 등 전국에서 펼쳐진 '악플 없는 날' 행사와 선플캠페인, 국제대학교와 함께한 여름캠프, 2024 친절가게, 선플결과보고대회 등 수많은 행사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이바지함을 느꼈고 또한 실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4년에도 선플운동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

력할 것입니다.

첫째, 선플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발언과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하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선플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국제적인 선플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플운동 단체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돕고,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선플교사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플교사협의회는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플교사협의회 선생님들

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교사협의회 회장 공원기



배달 앱에 남겨진 리뷰, 배려와 존중 필요해...

선플기자단 8기 편집팀 최하은

수많은 배달 음식 주문 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편리한 배달 문화를 누리며 있는 요즘이다. 특히 소비자가 앱에 직접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리뷰를 참조하여 메뉴 선택도 수월해졌다. 이 서비스는 별점과 리뷰를 통해 가게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소비자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달 음식 주문 앱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리뷰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리뷰나 낮은 별점이 영업 가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다. 영업 가게들은 별점을 높게 주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마케팅

전략인 '별점 이벤트'를 실시하여 낮은 별점을 만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벤트를 악용하고, 리뷰란에 악담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솔직한 리뷰에 발간한 영업 가게 사장의 답글도 있다. 다음은 최근에 발생한 배달 음식 주문 앱 리뷰 논란 사건들이다.

먼저 음식이 맛이 없어 지나친 악성 리뷰가 올라온 사건이다. 2023년 5월 7일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핫집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 사장의 건강 상태를 거론하며 수준 이하의 악성 리뷰를 남겼다.

고객 A 씨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장님 암 걸린 후로 여기 맛도 안 걸렸고 살아 계신 줄 모르겠지만 요즘은 맛이 죽었다. 암 걸려서 가게 신경 못 써서 맛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맛없고 운영 터덜터덜 해서 전별 받아 암 걸린 건지 신만이 알 것"이라며 "아직 안 죽었으면 먼저 죽을 내가 쓴 소리 한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옥에서 곧 만나길 바란다"며 도 넘은 악담을 쏟아냈다. 단순히 음식에 대한 평가가 아닌 영업 가게 사장의 건강 상태와 엮어 협담을 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악마가 따로 없다' 등 영업 가게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악성 리뷰는 모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오히려 솔직한 리뷰에 가게 사장님의 아니꼬운 답변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2023년 10월 3일 파이낸셜뉴스 조유현 기자에 따르면 배달 앱으로 디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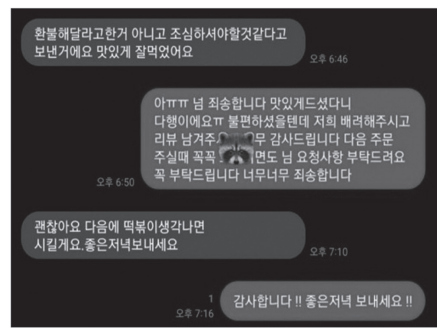
트를 주문한 손님은 사진과 다른 음식에 별점 1개를 줬다. 점주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고객 B 씨는 배달 앱으로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으나 카페 등록 메뉴 사진과 너무 다른 제품을 받은 것이다. B 씨는 당연히 오배송이라 생각하여 상담원 통해 재배상을 문의했더니 가게 측은 그 메뉴는 받은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객 B 씨는 별점 한 개와 이해되지 않는다는 리뷰를 남겼는데 문제는 사장의 답변이었다.

카페 사장은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는 있으나 여러 개의 리뷰 사진도 있어도 굳이 1점 리뷰 쓰시는 건, 사기라는 말씀까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뻔뻔한 가게다', '음식 사진 직접 만든 것으로 올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고객 B 씨를 옹호했다.

SNS와 커뮤니티를 넘어 모든 네트워크 공간으로 퍼진 악담과 모욕의 글들은 이전 가게 리뷰에서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음식의 맛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자의 신상까지 욕하며 지나친 악담을 남긴 사건도, 고객의 솔직한 리뷰에 사장이 가게의 이미지만 생각하며 남긴 아니꼬운 답변도 본인의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그들은 악담의 벽 안에서 매체 간의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모른 채 불편한 말들을 한 것이다. 배달 앱의 취지에 맞게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도를 넘은 발언들은 오히려 그 서비스의 효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 모욕이 아닌 진심이 담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서비스의 취지를 알고 모든 부정적인 리뷰를 안 좋게 보기도 개선 방안으로 여기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가 남긴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영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단순히 작은 가게 속 매모들이 아닌 사람과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라는 것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 배달앱 혼돈한 리뷰(서울경제 제공)

마지막으로 최근 혼란함을 자아냈던 리뷰 일화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경제 김태원 기자에 따라

면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한 고객이 별 5개를 주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임주에게만 보이는 후기를 남겼다고 한다.

고객 D 씨는 환불 처리해 드리고 싶다는 가게 측의 말에도 "환불해달라는 게 아니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리뷰 올렸다"며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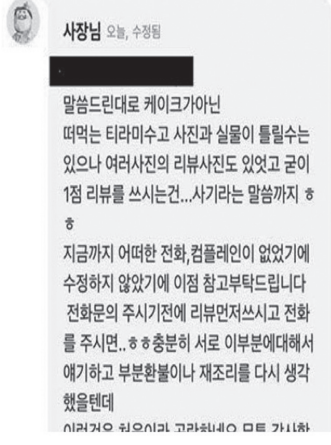
이 사연은 '후기 공포증'을 앓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사례이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 보인다.



진짜 고민하다 리뷰 안 쓰려다 울려요... 제가 희망 두부는 써어도 먹을 정도로 좋아해요 여기... 등으로 이름 여러개 쓰고 맛있고요... 몇년전 첫 주문 했을때 감동 받을 정도로 맛있고 좋았는데... 오늘뿐 아니라 최근 계속 너무 맛 없어요 그래서 잘 주문 하지도 않지만 늦은 새벽...은 여기 말고는 문면권이 없어 또 시켰어요... 특히 평어는 항상 말라 있는 데 왜 그런 건가요? 사장님 알아보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계신가요 돌아갔나요? 제가 새벽에만 시켜서 그런가요? 원래 영업 방식이 낫 근무자 퇴근시 생어늘은 회원 야간 근무자가 담아서 주는 시스템 인가요? 정황화거 안수 언저리 사장님 과 권리로로 여기 마와

▲ 배달 앱 악성 리뷰(동아일보 제공)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 배달 앱 가게 사장의 답변(파이낸셜뉴스 제공)

악플 추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 선플캠페인 정기 기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40-010-515896
예금주 : 재단법인 선플재단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조응태	인쇄 · 장용호	
발행처 (재)선플재단		본사 066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서초터몬트리랄리스 802호	
대표 전화 02)535-3449	홈페이지 https://www.sunfull.or.kr		
편집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신문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선플 친절가게를 소개합니다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지역사회 '선플친절가게' 캠페인 펼쳐

- 광운AI고 학생들이 선정한 친절한 가게에 '선플친절상' 수여
- 선플운동,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
- 학생들과 지역 사업자들, 상호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긍정적인 변화 이끌어내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교장 김도봉) 전자기술반&잠빛선플누리단 동아리 학생들이 CU광운기숙사점, 떡배기집, 미식성 등 학교 인근 가게들에 '청소년이 선정한 친절선플상'을 수여하고 가게 입구에 '선플친절가게'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25일 밝혔다.

'선플친절가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에게 친절한 가게를 투표로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가게를 방문하여 상장과 선플친절가게 스티커를 전달함으로써 친절한 가게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캠페인활동이다.

선플친절가게 캠페인을 지도한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정지욱 교사는 "지역사회에서 생활 밀착형 선플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플 캠페인에 참가한 광운AI고등학교 전자기술반&잠빛선플누리단 단장 박진표 학생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가게 사장님에게 연말에 특별하고 뜻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생각에 보람있는 일은 한 것 같아 뿌듯하고 재미있는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선플친절가게로 선정된 CU광운대기숙사점 김진희 점장은 "뜻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장과 선플가게 스티커, 그리고 학생들의 응원의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따뜻하게 학생들을 맞이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조용태 기자

수원 수성중학교 선플누리단, 청소년들에게 친절한 가게 선정 시상



경기도 수원 수성중학교(교장 엄정희)의 선플누리단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친절한 가게를 발굴하는 '선플친절가게'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선플친절가게 캠페인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친절한 가게를 선정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CU수원프라모아점, 이마트24수원수성대로점, 뽕송과자점, 카페 키다리아 저씨 등을 '청소년이 선정한 선플친절가게'로 선정했다.

김수정 지도교사는 "선플친절가게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언급했다. 김 교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한 체험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수성중학교 최장혁 학생은 "이번 활동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전했으며, 김지현 학생은 "친절한 사장님들에게 상을 전달하며 친절한 사장님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마트24수원수성대로점의 사장님은 "가게를 오픈한 지 1년 만에 학생들의 칭찬을 받아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장님은 "선플상을 계기로 내년에 더욱 열심히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을 통해 수성중학교 학생들은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친절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인문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은 실생활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정주호 기자

대신중학교 선플누리단, 청소년들이 뽑은 '선플친절가게' 캠페인 전개

- 학생 주도의 지역상권 부흥, 대신중학교 선플누리단의 '선플친절가게' 캠페인
- 인성 교육의 새로운 지평,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배려와 응원의 문화 조성
- 학생들의 칭찬이 지역 가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변화



대신중학교(교장 이진숙)의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본교 인근 CU 중로 대신점을 '청소년이 선정한 선플친절가게'로 선정하고, 친절선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가게를 방문하여 상장과 선플친절가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플친절가게 캠페인을 지도한 공원기 지도교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응원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선플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플누리단 단장인 최진서 학생(3학년)은 "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칭찬의 바람을 전파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함께 참여한 정우진 학생(3학년)은 "자주 이용하는 가게 사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뿌듯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대신중 학생들에 의해 최고의 친절가게로 선정된 CU 중로대신점 사장 김보근 씨는 "뜻하지 않았는데 선플가게 스티커와 더불어 학생들의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친절함을 잃지 않고 선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하는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친절과 배려의 중요성을 실천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신중학교 학생들의 선플봉사활동은 실생활에서의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우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진숙 기자

오산고등학교 선플누리단, 학교 인근 지역 친절가게 선정 시상

- 청소년이 선정한 선플친절가게 시상
- 긍정과 친절의 선플문화 확산 기여
- 학생 주도 지역 상권 부흥 캠페인



오산고등학교(교장 김상기)의 선플누리단 포돌이 학생들이 지난 11월 17일, 청학동 일대의 이삭토스트, 주먹밥 하우스, 드림디포 등 학교 인근 가게들을 '청소년이 선정한 선플친절가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 상권을 돌며 친절한 가게를 발굴하고 인정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한규천 지도교사는 이번 캠페인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조성을 위한 선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교사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선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고 선플누리단 포돌이 단장 고민서 학생은 "학생들에게 친절한 가게 사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뿌듯하고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림디포 오산대점의 김영랑 점장은 오산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선플친절가게로 선정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표시했다. 김 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따뜻한 말과 친절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친절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오진숙 기자

마중물작은도서관 선플누리단, 선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파

- 청소년 주도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선플친절가게 캠페인
- 가게 운영자의 마음가짐이 분위기를 변화시킨 카스텔로 카페
-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성장, 선플누리단의 노력과 사회 참여 확대



마중물작은도서관(관장 조복연) 선플누리단 청소년들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카스텔로 카페를 선플친절가게로 선정하고 선플 친절가게 스티커와 선물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를 방문하여 선플친절가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지도자 문영미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친절한 가게를 발굴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풍납도성 근처의 카스텔로 카페는 깨끗한 환경과 생화로 장식된 아늑한 공간, 무엇보다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덕여대 정혜인 학생은 "카페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방문 시 맞이한 친절함과 식물로 가득한 환경에 너무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대원국제중 정지민 학생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가게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며, "카스텔로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합리적인 가격의 음료, 친절 한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잠실중 조서현학생은 "가게를 직접 찾아가 스티커와 선물을 전달하면서 가게 사장님의 친절함에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카스텔로 카페 김라희 대표는 "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게가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객들에게 선플운동의 가치를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절과 선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선플친절가게 캠페인은 마중물작은도서관과 선플누리단 청소년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경화 기자

고양 제일중학교 선플누리단, 지역사회를 밝히는 선플친절가게 캠페인 실시

- 학생 주도의 변화, 고양에서 퍼지는 선플친절가게 운동
- 선플누리단의 캠페인으로 확산되는 선한 파장
- 고양시 학생들이 이끄는 선플운동의 성과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제일중학교(교장 박경란)의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관산동 지역의 가게들을 선플친절가게로 선정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매점, 관산 베이커리, CU, 메가커피, 푸라담 등 학교 인근의 가게들을 선플친절가게로 선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친절한 선플친절가게 사장님에게 친절스티커와 상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는 활동으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선플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양제일중학교 박연수 교사는 "학생들이 선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전파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선플누리단 전인호 학생은 "가게 주인들이 스티커를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으며, 노준기 학생은 "학교 주변 가게들을 친절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민호 학생은 꼭 착한 가게를 방문하여 이용해보고 싶다고 했다.

푸라담 관산동점의 임경희 사장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가게로 선정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따뜻한 말과 친절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지역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선플운동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오진숙 기자